

지역 매아리

김제지평선축제 부스운영자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0일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및 부스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교육은 체험부스 운영자와 음식 부스 운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홍보축제실 양운영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가스안전공사와 김제소방서의 가스안전 및 화재예방 교육, 축제담당자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법 및 부스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스형 LPG가스 사용 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행동 매뉴얼 등 화재예방 교육, 카드단말기 사용 교육 등 부스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적인 당부사항으로는 부스 운영 시 웃으며 인사하는 친절함 응대, 카드결제 적극 활용 및 운영자 차량 유료주차장 주차 자제, 체험부스 운영자에게는 체험프로그램 카드결제 요청 시 상품권 구매 안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음식부스 운영자에게는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및 음식부스 종사자 전원 보건증 발급, 한시적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기간 준수에 대해 철저히 당부했다. 양운영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지평선축제가 만족도 1위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여기모인 부스 운영자들의 덕분이다. 올 지평선축제 역시 관광객에게 최고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친절함 응대와 아낌없는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홍보 박차

완주군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해 완주군을 알렸다.

완주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일산 컨텍츠 전시장에서 열린 국제 관광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투어패스를 홍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관광박람회는 280개의 관광관련 업체들과 4만2500명의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를 교류하는 대규모 행사다.

완주군은 박람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완주군의 관광지인 완주와일드푸드 축제 및 전북투어패스를 알렸다.

박람회 참가객은 "카드 한 장으로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관광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아주 유용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완주군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전북투어패스를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알려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지평선산업단지내 글로벌 펫푸드 기업인 로얄캐닌의 김제공장 오픈식이 10일에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운주현 김제시장, 대한수의사회 김욱경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로얄캐닌 김제 공장 문열어

지평선산업단지 입주

연 9만톤 사료생산 예정

오픈식 200여명 참석

김제 지평선산업단지내 글로벌 펫푸드 기업인 로얄캐닌의 김제공장 오픈식이 10일에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운주현 김제시장, 대한수의사회 김욱경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로얄캐닌은 2014년 3월 김제시와 지평선산업단지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650억원을 투입해 2015년 10월에 대지 9만7,994.4㎡, 연면적 2만

3,608.39㎡ 규모로 본 공장을 착공했으며, 2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완공했다.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상해공장의 3배에 달하는 연 9만톤의 사료를 생산해 이 중 80% 이상을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로 수출 할 계획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 거점 구축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로얄캐닌 김제공장의 오픈으로 김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기업 로얄캐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얄캐닌 실비바 버베리 아시아·태평양 회장은 "로얄캐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 허브'가 될 김제공장 오픈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반려견 및 반려묘가 정밀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더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지난 7월부터 시생산을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레시피와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로얄캐닌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 본사 연구소에서 수개월간의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승인된 제품들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완주군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 '성큼'

2020년 사업 발굴 조기착수

보고회에서 실현가능성 등 검토

국가예산 5000억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박성일 완주군수가 신규 국가예산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완주군은 군민이 행복한 으뜸 완주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및 5대 핵심정책 완성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15만 자족도시 완주 대도약을 위한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0만 도시기반 50만 정주여권 실현을 위한 주민생활기반(생활SOC사업 등) 사업 11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경제분야 6

건 등을 비롯해 부서별로 1차 검토를 완료한 총 37건 2207억원(총국비 1,350억원) 규모의 아이디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향후 완주군은 보고된 국가예산 아이디어 사업을 도·부처 의견수렴과 지역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조사를 보완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시켜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군민참여 신 성장동력 창출 아이디어 공모 및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을 추가 발굴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 발전을 견인할 선도시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

다. 박 군수는 "완주군이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다"며 "앞으로 국가예산에 지역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되고,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국가예산 3000억 시대(2018년 3215억원)를 연 완주군은 민선 7기 국가예산 5000억시대 달성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민선7기 시정 유시유종 마음으로"

김제시 제221회 정례회

시정전반 관한 질의 응답

김제시에서는 지난 7일 제221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4명의 김제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하고 민선 7기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끝맺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마음으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박 시장은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등 10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700여원의 국도비 확보, 정부혁신평가 대통령기관포상 수상과 지평선축제의 관광객 만족도 1위 축제 선정 등 취임 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뤄 낸 시정 주요성과를 설명한 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이 질문한 7월초 3명의 과장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민선 7기는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자 취임 후 바로 상징적으로 회계과장을 교체했다

고 답변했다. 벽골제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그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이론 성과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인 김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는 꼭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유진우 의원의 수상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 질의에 대해 관련법령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태양광 산업 부품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자(마선거구)의원의 김제시 소멸위기 대책관련 질의에 대해 청년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역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출산양육 분야, 청년일자리 분야, 지역인재 육성 분야 등 4개분야 27개 사업에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내실있게 추진 김제가 결코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완주 운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선정

총 40억원 사업비 지원

문화·소통공간 조성

완주군 운주면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선정돼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운주면이 최종 선정돼 4년 동안 국비 28억, 지방비 12억 등 총 40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면 소재지의 중심기능을 강화해 배후마을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농촌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을 강화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생활권 구현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운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인 생활문화공동

체센터 '돌봄'과 ▲생활민물수리센터와 휴게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청년활동센터 '공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소재지 중심지 상가의 넓은 간판정비, 도로의 가로등 정비, 보도를 정비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장선천의 일부 정비를 실시, 쾌적하고 편리한 친변 친수공간을 조성해 운주면 소재지가 농촌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군민 행복을 위한 보다 나은 완주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여기고 운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삼례, 이서, 소양, 고산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개 지구에 2021년까지 총 249억원(국비174억원)을 투자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